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혼성그룹이 몰려온다

현아의 '트리플H' 섹시미 부각 4인조 '카드' 자유분방함 승부 '신현희와 김루트' 독특함 눈길

혼성그룹도 '여름 대전'에 뛰어 들었다. 한동안 혼성그룹의 부재가 이어지던 가요계에 모처럼 혼성그룹이 잇따라 나서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트리플 H와 카드, 신현희와 김루트가 그 주인공

해 승부수를 던졌다. 타이틀곡 '레트로 퓨처'는 미래주의 성격이 강한 창작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예전의 것에서 멋을 찾아 새로운 청춘을 표현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4인조 혼성그룹 카드(비엠·제이셉·전소민·전지우)도 팀 분위기가 잘 녹아든 '자유분방함'으로 돌아온다. 25일 세 번째 미니앨범 '라이드 온 더 윈드'를 내놓고 활동을 시작한다. 새 앨범에는 여름을 겨냥한 청량함은 물론 멤버들의 개성



▲카드



▲신현희와 김루트

공들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팀 색깔만으로도 뚜렷한 차별화를 이룬다. 대형 걸그룹들의 혼전 속에 혼성그룹의 '색다른 열전'이 팬들의 시선을 끌기에도 충분하다.

여름 분위기와 가장 어울리는 혼성그룹은 트리플H. 독보적인 섹시 여가수로 자리매김한 현아를 주축으로 펜타곤의 후이, 이던으로 구성된 이들은 18일 새 앨범 '레트로 퓨처리즘'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199X'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이들은 팀 콘셉트를 잘 살려 이번에도 섹시미를 부각시켰다.

이들은 이날 선보인 두 번째 미니앨범 '레트로 퓨처리즘'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에 레트로풍 음악을 더

을 잘 살린 곡들로만 준비했다. 특히 이들의 특기인 남녀 멤버 2명씩 짝을 이뤄주는 커플댄스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게 목표다. 또 올해 초까지 월드투어를 다녔던 이들은 국내 컴백을 기념해 처음으로 8월 첫 단독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 앞서 최근 인기몰이에 나선 신현희와 김루트는 발랄하다 못해 독특한 이미지로 팬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2년 전 발표한 '오빠야'라는 곡으로 '역주행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들은 이번엔 차근 차근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앨범인 만큼 신현희와 김루트는 뜨거운 열정으로 '여름 사랑'을 하고 있다. 이정진 기자 annjoy@donga.com



현아(오른쪽)와 펜타곤 이던(왼쪽), 후이로 이뤄진 혼성 프로젝트 유닛 트리플H가 18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에서 두 번째 미니앨범 '레트로 퓨처리즘'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 첫 무대를 공개했다. 김진희 기자 kwangshin00@donga.com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연예 잡학사전>



'꽃할배'로 본 노년 여행 팀 일교차·도로사정 확인 必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의 이순재(83)·신구(82)·박근형(78)·백일섭(74)·김용건(72)은 평균 나이 77.8세가 무색할 만큼 열정적으로 여행을 즐긴다. 특히 연장자인 이순재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뽐내며 '직진순재'로 불리는 등 '할배'들의 체력에 새삼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할배들을 꼼꼼하게 배려한 제작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꽃보다 할배'에 비춰 '어르신들을 위한 여행 꿀팁'을 소개한다.

일단 여행지를 해외로 결정했다면 비행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장거리 비행은 도착 전부터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꽃보다 할배' 연출자 나영석 PD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도 여행이었다. 다섯 할배들은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등을 여행한다.

날씨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다.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날씨와 환경에 따라 건강에 무리가 가기 쉽기 때문에 일교차도 따져봐야 한다. '꽃보다 할배' 속 출연자들은 반팔 티셔츠에 얇은 점퍼를 걸쳐 입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행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날씨로 꼽힌다.

여행을 하다보면 평소보다 많이 걷게 된다. 계단이 많고 비포장도로이면 잠깐만 걸어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므로 '도보 여행'에 적절한 도시를 찾는 것이 좋다. 또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숙소 등의 엘리베이터 유무도 체크해야 한다.

나 PD는 "여행지의 도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다. 버스타지하철로 이동이 불가능할 때는 걸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김청주·고정일 기자

속편 기대되는 '마녀'...더 기대되는 김다미

영화 '마녀'가 신예 김다미의 탄생을 알리며 그 속편 제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다미는 단순한 주연배우의 위상을 뛰어넘어 속편을 제작하는데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역량과 재능을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녀'의 김다미

'마녀'는 한 시설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건의 현장에서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가는 평범한 여고생이 겪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현란한 액션으로 녹여낸 영화. 김다미는 1500대 1의 치열한 오디션 경쟁률을 뚫고 주연자리를 꿰찬 뒤 순수함의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본성을 드러내

는 캐릭터를 연기했다. 신인으로서의 녹음하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연출자 박훈정 감독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연기를 감각

적으로 표현하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으며 만큼 뛰어난 연기력을 과시했다.

이런 호평에 힘입어 김다미는 '마녀'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김다미는 신선한 감각을 지닌 신예로서 극중 극과 극의 성격을 지닌 캐릭터를 다채로운 표정과 연기로 표현해냈다. 따라서 속편에서 다시 드러낼 캐릭터의 근원적 매력에 대한 궁금증을 키운다.

무엇보다 '마녀'는 'Part.1, Subversion (전복)'이라는 부제를 타이틀에 깔고 있다. 또 결말에 이르러 그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암시하는 또렷한 장면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관객은 '마녀'가 속편 혹은 그 다음 시리즈로 이어지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무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작품임을 확인한다.

'마녀'는 18일 현재 전국 258만여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제작비를 회수하는 손익분기점(230만명)을 넘어서면서 속편 제작을 더욱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 '마녀'의 한 관계자는 18일 "투자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의 작품으로, 속편 제작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워너브라더스의 미국 본사가 갖고 있다. 이를 포함해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극중 내용 등 속편 제작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면서도 "현재 내부적으로는 속편 제작을 기대하는 분위기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유영진, 불법 오토바이 운행 적발

SM엔터테인먼트 작곡가 유영진(47)이 정부의 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다닌 사실이 적발돼 공가후 부정사용혐의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유영진은 5월 서울 청담동 한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유영진이 탄 오토바이는 환경부 검사를 통과하지 않아 정식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진은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박진영, 순위 조작 정부에 조사 의뢰

박진영이 최근 논란이 되는 음원순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18일 SNS를 통해 밝혔다. 박진영은 "최근 음원 순위 조작에 관한 의혹들이 제기돼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과 의혹을 받는 분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져 하루빨리 아티스트들과 회사들이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차트 역주행으로 의혹을 받은 가수 손 측이 악성 누리꾼들을 18일 고소했다. 손 측은 "선처는 결코 없다"고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 카카오M과 재계약

가수 아이유가 현 소속사 카카오M(구 로엔엔터테인먼트)과 재계약했다. 카카오M 측은 18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계약 만료와 관련해 논의가 갖던 아이유는 카카오M과의 돈독한 상호신뢰를 확인하면서 계약 종료 시점을 아직 수개월 앞둔 가운데서도, 재계약 여부를 빠르게 결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이유는 현 소속사와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2008년 카카오M의 첫 솔로가수로 데뷔한 아이유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뮤지션이자 프로듀서로 성장하며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김정민 협박 전 남친, 집행유예 선고

방송인 김정민을 협박한 전 남자친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정민이 해어지고 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손 모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손 대표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사귀면서 수억 원을 썼다며 혼인빙자사기혐의로 김정민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대표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며 손 대표를 고소했다.

여옥환, 2세 연하 여친과 내일 결혼

배우 여옥환(40)이 2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여옥환의 예비신부는 2살 연하의 양모 씨로, 요식업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예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 6개월간 교제를 해왔다. 여옥환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자친구는 착하고 유쾌한 성격"이라며 "결혼 후 당분간 여자친구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기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년 드라마 '학교4'로 데뷔한 여옥환은 이듬해 MBC 시트콤 '논스톱3'으로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다.